

# ‘팽목항의 소리, 진실을 인양하라’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공모전... 29일까지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추모시·추모곡 공모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제5주 기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추념' 추모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공모전은 세월호 희생자 추념 행사 참여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를 추모하고 도민들의 행사 참여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엄에 대한 인식을 제

고하기 위함이다. 공모분야는 추모 창작시와 창작곡으로 '팽목항의 소리, 진실을 인양하라'는 주제로 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이번 달 29일까지며, 전 북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및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전북교육소식 홈페이지(<http://news.je.go.kr>)에서 공모전을 클

릭, 공모전 접수 게시판에 출품 제목, 작품 소개와 출품자 인적사항을 작성한 뒤 작품을 첨부하면 된다. 공동작업에 의한 창작곡인 경우 제작자 및 참여자를 명시해야 한다. 창작시는 한글문서와 손편지 형식의 A4 1매 규격으로 1인당 3편 이내로 응모할 수 있으며 창작곡은 3~5분 내외 용량으로 1인당 2편 이내로 응모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4월 1~3일 심사를 거쳐 5일 최종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각 분야별로 대상 1명, 우수상 2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교육감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각급 학교 계기교육 자료로 배포하고 추념 행사시 우수작으로 소개된다. /장은성 기자

## 교육당국, 사립 초·중·고 교사 신규채용 매뉴얼 만들어 배포

### 교육감 위탁채용 시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 사전공고 내용과 공개전형·투명성 강화 방안

교육당국이 사립 초·중·고 교사를 신규 채용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각 사립학교에 배포한다. 필기시험 등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 활성화를 위해, 위탁하는 법인에게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11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립 초·중·고 교사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매뉴얼은 채용계획 수립부터

임용보고까지 채용 전 과정에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과 채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사립학교법인의회의가 공동 제작했다. 이전까지는 개별 교육청이나 사립학교법인의회의에서 제작한 바 있다. 교육당국이 제작한 매뉴얼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채용 관련 조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사립학교 법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예비교사가 채용 절차와 기준을

확인하도록 해 채용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매뉴얼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은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 관할 교육청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협의 없이 임의로 교사를 채용할 경우 임금 등을 보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매뉴얼에 마련했다. 또한 법인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권을 강화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학교장과 이사회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공개채용 전반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전형 단계와 일정, 합격자 수,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고,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 다시

공고하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면접 등에서 평가위원을 복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친인척 응시 시 제척하고, 출제·제점위원 격리 등 보안을 강화한다. 회의록과 답안지 등 문서자료를 10년간 보관하는 등 공개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교육부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대해 개별 대응하던 것을 넘어,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공동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봤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절차와 기준을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시



전북대학교가 11일 오후 2시와 3시 각각 제19기 학생 홍보대사 임명식 및 제18기 홍보대사 수료식, SNS 홍보단 임명식을 가졌다.

## “우리학교 홍보는 우리가”

### 전북대 19기 학생 홍보대사·SNS 홍보단 등 23명 임명

“전북대학교가 갖고 있는 우수성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를 대외에 알리는 데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 홍보대사 15명과 SNS 홍보단 9명이 임명장을 받고 1년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대는 11일 오후 2시와 3시 각각 제19기 학생 홍보대사 임명식 및 제18기 홍보대사 수료식, SNS 홍보단 임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동원 총장은 제19기 전북대 학생 홍보대사 김나운 학생(3년)을 비롯한 15명의 신입 홍보대사들과 이새를 학생(4년) 등 9명의 SNS 홍보단 학생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전북대의 대내외 이미지 제

고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학생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각종 대외 행사 지원을 비롯해 입시 홍보, 내방객들을 위한 캠퍼스 투어 진행, 각종 영상물 촬영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SNS 홍보단 학생들은 카드뉴스를 비롯해 웹드라마 등을 SNS 홍보용 콘텐츠 개발·제작해 전북대를 대외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김나운 학생(19기 학생 홍보대사 대표)은 “우리대학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대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이들과의 따뜻한 동행을 통해 알찬 대학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기자

## 전북대학교 허강무 교수 국회 입법지원단 위원 위촉

전북대학교는 허강무 교수(공공인재학부)가 제9기 국회 입법지원단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허 교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건설 관련 법률에 대해 입법자문 및 지원을 하게 된다. 허강무 교수는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경력을 토대로, 현재 국토부, 농림부, 법무부 등의 부동산정책 관련 정부자문활동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전문가다. 입법지원위원은 법률안 입안 및 행정입법 검토에 대한 자문, 법령 제·개정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개학 연기’ 주범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 결국 사임

이달 초 ‘개학 연기’를 주도하며 정부와 맞섰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이 결국 물러난다. 이 이사장은 1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한유총 이사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



과드린다”며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후임 한유총 이사장이 선임되는 3월26일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운영자 울림과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것 하나 언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교육당국에게 이 이사장은 “유치원 3법과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수렴절차와 관계없이 학부모와, 사립유치원, 그 밖

의 다양한 유아교육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이 터지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한유총의 대정부투쟁을 이끌어왔다. 지난해 12월 한유총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으나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을 사용하지 않아 이사장 재선출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 한유총은 오는 26일 총회를 열어 이사장을 다시 뽑을 예정이다. 한편 한유총은 오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뉴스시

## 전북대병원 전영미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치과교정과 전영미 교수가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

혔다. 전영미 교수의 수상은 치과병원 발전과 지역사회 구강건강, 보건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전영미 교수는 2000년 3월 전북대학

교 치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과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또한,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북대병원 치과진료처장을 역임하면서 ‘치과병원 발전과 지역사회 구강보건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 /김영태 기자

## “기사가 작성되는 과정 생생하게 경험하세요”

### 전북교육청, 학생기자단 모집

전북교육청이 제10기 학생기자단을 모집한다. 학생기자단은 학생 시각에서 교육 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해마다 운영해 오고 있다. 모집은 도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초등학교생은 6학년, 중·고생은 1~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전 기수 학생기자단 수료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학생기자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기소개서를 첨부해 전북교육소식 홈페이지(<http://news.je.go.kr>)를 통해 온

라인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심사를 통해 학교급별로 30명씩 총 9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활동기간은 2020년 2월까지다. 학생기자로 선발되면 기자의 자세부터 취재기사 작성법, 인터뷰 기법, 사진에 대한 이해와 촬영법 등 다양한 이론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방송국·신문사 등을 직접 견학하며 실제 기자들의 생활과 기사가 작성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선발된 학생기자들은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매일 1건 이상의 기사를 작성하면 된다. 학생기자단 활동기간 동안 오프라인 교육 참여 실적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종료 후 우수 기자상 및 기자증이 수여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기야 합니다